

김도영, 단일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

'시즌 38호포'로 136득점...서건창 넘어 138득점 국내 타자 첫 '40-40' 대기록 달성에는 홈런 '-2'

미국 메이저리그에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있다면 KBO에는 '슈퍼스타' 김도영이 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수립했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열린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해 1회말 상대 선발투수 이승민으로부터 가운데 담장을 넘는 솔로포를 터뜨렸다. 시즌 38호 홈런이자 올 시즌 136번째 득점이다.

이 득점으로 김도영은 2014년 서건창(현 KIA)이 넥센 히어로즈에서 작성한 최다 득점 기록(135점)을 10년 만에 갈아치우고, KBO 새 역사를 다시 썼다.

홈팬들의 열띤 응원을 등에 업은 김도영의 득점 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회 볼넷과 도루로 2루를 홈친 뒤 윤도현의 안타때 추가 득점을 올렸고, KIA가 4-1로 앞선 7회엔 박찬호의 2루타때 홈을 밟아 이날만 3득점을 수확, 최다 득점 신기록을 138개째로 늘렸다.

아울러 이날 경기에서 1홈런과 1도루를 보태며, 야구팬들의 흥미의 관심사인 40(홈런)-40(도루) 대기록 달성 가능성도 높였다.

23일 기준 38(홈런)-40(도루)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2홈런만 추가하면 KBO

역대 2번째이자 국내 타자 최초로 40(홈런)-40(도루)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30-30의 상위 버전인 40-40은 지난 2015년 NC 다이노스의 에릭 제임스가 개척한 전대미문의 업적이다.

야구팬들은 이제 김도영이 그 바탕을 이어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KIA는 이미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된 상태라 잔여경기 승패에 부담이 없다. 김도영이 현재의 좋은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대업을 이뤄낼 수 있다.

여기에 시즌 막판 예정에 없던 마지막 홈 경기 일정까지 새로 생겨 김도영의 기록 달성은 더욱 유리하다.

KIA는 당초 25일 롯데(광주), 27일 한화(대전), 28일 사직 롯데와의 원정전을 끝으로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우천으로 취소된 NC와의 경기가 오는 30일로 재편성되면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됐다. 김도영이 올해 광주 구장에서 기록한 홈런은 총 16개다.

김도영이 롯데전까지 40홈런 고지 등극에 실패하더라도, 안방에서 축포를 쏘며 멋진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기회를 얻은 셈이다.

'꿈의 기록' 달성에 성공한다면 시즌 MVP 수상에도 더욱 바짝 다가갈 수 있다. /주홍철 기자



KIA 김도영이 지난 23일 열린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타이거즈 입단신인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R 지명 김태형 3억원 계약

KIA, 2025년 신인 선수 입단 계약 완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4일 2025년도 신인 선수 11명과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

KIA 타이거즈는 1라운드 지명 선수인 김태형(덕수고·투수)과 계약금 3억원, 연봉 3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라운드 이호민(전주고·투수)과는 계약금 1억5천만원, 연봉 3천만원에 계약을 맺었고, 3라운드 박재현(인천고·외야수)과는 계약금 1억원, 연봉 3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25년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

한편, KIA는 이날 최준영 대표이사

순위	이름	포지션	학교	계약금	연봉
1R	김태형	투수	우원대	2006-12-15	3억4천
2R	이호민	투수	우원대	2006-08-26	2억5천
3R	박재현	외야수	우원대	2006-12-08	1억4천
4R	양승호	투수	우원대	2006-09-09	8천
5R	김민준	투수	우원대	2006-04-18	7천
6R	김민준	투수	우원대	2002-07-09	8천9백90
7R	이준우	투수	우원대	2006-07-24	8천200
8R	김민준	투수	우원대	2005-06-10	8천7백90
9R	김민준	외야수	우원대	2006-04-20	2천500
10R	이준우	투수	우원대	2006-05-18	9천200
11R	박재현	외야수	우원대	2006-01-05	8천9백90

을 개최했다.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구·시포행사를 하며 프로 선수로의 새출발을 알렸다. /주홍철 기자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광주시체육회가 다음 달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선수단의 훈련장을 방문해 사기 진작에 나섰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광주일고(무등경기장), 금호고, 서진여고, 광주체고, 남부대, 조선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야구, 복싱, 수영, 축구, 검도, 소프트테니스, 하키 등 강화훈련 중인 대표선수단을 격려했다. (사진)

광주선수단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전국체전 48개 종목에 1천424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49개 종목에 3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광주 시민을 대표해 광주체육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체육회, 전국체전 실무자 회의 개최

전남도체육회가 24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회의를 열고 전남체육 위상 제고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49개 회원종목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가 계획 보고에 이어, 대전추첨 결과 및 예상전력 분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도체육회는 개최지 이점 없이 원점에서 경쟁하는 만큼 지난해 종합4위에 비해 순위가 다소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 목표로 매진한 불참 종목 및 중별 해소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종합 13위)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날 마지막으로 종목단체들의 전국체전 전력분석의견과 대회 참가 준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준비를 마쳤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이 17일 남은 시점에서 전력분석과 우수성적 달성에 필요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 경기력 향상과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못지않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정해영, 26년 만의 '타이거즈 구원왕'

23일 삼성전 31S...생애 첫 세이브왕 조기 확정 KBO 리그 통산 17번째 120S 달성...'최고의 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수호신' 정해영이 올 시즌 구원왕에 등극했다.

정해영은 지난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5-3으로 앞선 9회초 2아웃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고 팀 승리를 지켜냈다.

시즌 31세이브째(2승3패1홀드)를 올린 정해영은 2위 삼성의 오승환(27세이브)과의 격차를 4개로 벌리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생애 첫 구원왕을 확정했다.

오승환은 이날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남은 정규리그 4게임에 더 이상 등판할 수 없는 관계로 이 부문 1위에 오를 수 없다.

정해영이 구원왕에 오른 것은 KIA 소속으로는 처음이고, 타이거즈

소속으로는 1988년 임창용(해태, 34세이브) 이후 26년 만이다.

정해영은 전반기에 2개의 세이브를 올리며, 24개의 오승환에 이어 2위를 달렸다.

전반기 막바지에는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6주 가량 전열에서 이탈해야 했다.

하지만, 오승환이 후반기들어 3세이브를 올리는 데 그치는 사이 정해영은 지난달 6일 kt전에서 복귀한 이후 7세이브를 수확하며, 이달 초 단독 1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올 시즌 55경기에 출장해 평균자책점 2.59를 기록한 정해영은 KIA 뒷문을 든든히 지키며, 정규리그 1위 확정에 큰 공헌을 했다.

지난 4월24일에는 개인 통산 100세이브째를 22세8개월1일에 수확



지난 23일 열린 KIA와 삼성의 경기에서 9회 구원왕판한 KIA 정해영이 팀 승리를 지켜낸 후 포수 한승택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해 2000년 임창용(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23세10개월10일을 1년 이상 앞당긴 최연소 기록을 작성했다. 또, 지난 8일에는 KBO리그 통산 17번째 120세이브를 달성하는

기업을 통했다. KBO 리그 최고의 클로저로 거듭난 정해영은 이제 내달 한국시리즈 첫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주홍철 기자

이르면 10월2일 '가을야구' 플레이볼

KBO, 정규 시즌 2차 잔여 4경기 일정 확정



KBO는 24일 2024 신한 SOL뱅크 KBO 정규시즌 2차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편성된 경기는 1차 잔여 경기 일정 발표 이후 우천 취소된 후 편성되지 않

았던 4경기이며, 10월1일까지 편성됐다.

경기가 우천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로 우선 편성되며, 다음 날 동일 대진일 경우 다음 날 더블헤더로 편성된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

추후 편성된다. 경기 개시시간은 평일 오후 8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다. 또한 29일 및 10월1일은 이동을 고려해 오후 5시에 편성한다.

한편,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기나 포스트시즌 참가팀 이외의 팀간 경기이거나 포스트시즌 진출팀이라도 해당 시리즈와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에

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또는 포스트시즌 기간 중에도 경기를 거행할 수 있으며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구단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최일 사이 최소 하루의 이동일을 둘 예정이다.

또한 5위 구단이 2개일 경우에는 KBO 리그 규정에 의거 와일드카드 결정전 전날 별도의 5위 결정전을 거행한다. /주홍철 기자